

“시즌 4승은 내가 먼저”…방신실 vs 이예원 다승왕 경쟁

KLPGA 하나금융 챔피언십서 18일 맞대결

세계랭킹 3위 리디아 고·4위 이민지도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이번 시즌 나란히 3승을 거둔 방신실과 이예원이 최다 상금이 걸린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서 4승 선착 경쟁을 펼친다. 방신실과 이예원은 18일부터 나흘간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파72-예산 6781야드/본선 6813야드)에서 열리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들은 이번 시즌 3승씩을 올려 다승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방신실은 지난주 OK저축은행 아웃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와 7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 이어 3승 고지를 밟은 뒤 이번 대회에서 2연승과 시즌 4승을 동시에 정조준한다.

그는 이달 초 KB금융 스태챔피언십에서 공동 6위에 오르고 이어진 OK저축은행 아웃오픈에선 우승 삼패인을 터뜨려 최근 기세가 좋다. 방신실은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할 수 있어 설레고 감사하다. 현재 컨디션과 페이스가 좋으니 내가 좋아하는 코스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면서 “이번 대회의 핵심 공략 포인트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다. 티샷에 집중해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예원은 4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두산 매지플래이에

서 3승을 쓸어 담은 뒤엔 주춤하다. 7월 이후엔 톱10에 든 것이 지난달 초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공동 5위뿐이다. 이예원은 “샷 감각은 안정적이지만 집중력이 떨어져 이를 끌어올리는 데 신경 쓰고 있다”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즌 2승의 홍정민은 3승 대열 합류를 노리며, 상금 1위 노승희(10억9418만원)와 대상 포인트 1위 유현조(503점)는 시즌 두 번째 우승으로 개인 타이틀 선두 사수에 도전한다. 올 시즌 1승씩 수확한 박현경, 배소현, 김민술, 이동은, 고지우, 고지원 등도 출전하며, 2023년 우승자 이다연, 2022년 챔피언 김수지도 나선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마지막 날에만 무려 11언더파를 몰아치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마다숨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마다숨은 “코스 전장이 긴 편이어서 마들·롱아이언 샷과 중장거리 퍼트가 중요하다”면서 “하반기 시작하고 장염에 걸리면서 컨디션은 조금 떨어졌는데, 샷 감각이 좋아 감각과 체력을 잘 유지하며 경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세계랭킹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4



방신실



이예원

위 이민지(호주)는 후원사 주최 대회에 출전해 한국 팬들을 만난다. 이들 외에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받는 지난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신인왕 이효송, 아마추어 국가대표 오수민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LPGA 투어 2025시즌 24번째 대회인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레이디스 아시아투어(LAT) 시리즈의 하나로도 개최된다. /연합뉴스

‘58개월 무관’ 김세영, 아칸소에서 LPGA 우승 도전

4개 대회 연속 톱10 질주…유해란·박성현 등 한국 선수 24명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 가운데 요즘 가장 뜨거운 경기력을 뽐내는 김세영이 또 한 번 시즌 첫 우승 상상에 나선다. 김세영은 20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김세영은 최근 경기력이 한껏 올라와 있다. 최근 치른 5개 대회에서 4번 톱10에 들었다. 아울러 7월부터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 경쟁을 벌였다. 가장 처진 성적인 AIG 여자오픈 공동 13위였지만 이때도 우승 경쟁 끝에 받아낸 순위였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통산 12번째 우승을 거둔 뒤 58개월 동안 이어진 우승 침묵을 깰 태세다.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은 김세영이 지난해 아깝게 우승 기회를 놓쳤던 터라 설욕전도 겸한다. 지난해 김세영은 이 대회 최종일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코스 난도가 높지 않고 LPGA 투어에서는 거의 사라진 3라운드 54홀 대회라서 쉬운 코스에서 몰아치기를 잘하는 김세영에게는 기대를 걸만하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은 지난 19년 동안 한국 선수가 7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7명의 한국 선수 역대 챔피언 가운데 유해란(2023년), 박성현(2019년)은 대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유해란은 생애 첫 우승을 따냈던 뜻깊은 대회다. 유해란은 이 대회에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신인왕 수상의 발판으로 삼았다. 워낙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 유해란은 큰 자신감을 장착한 채 출전한다. 재기에 안간힘을 쓰는 박성현은 LPGA 투어에서 최근 거둔 우승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이었다. 이곳에서 우승한 뒤 박성현은 긴 침체에 빠졌다. 재기를 알리는 무대로 안성맞춤인 셈이다. 한국 대회를 다녀가면 부쩍 힘을 내는 박성현이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주목된다. 유해란과 함께 시즌 2승을 노리는 김효주와 김아림, 그리고 임진희와 이소미도 출사표를 냈다. 고진영, 최혜진, 전인지, 윤이나 등 한국 선수는 모두 24명이 출전한다. 준우승 징크스에 갇힌 세계랭킹 1위이자 2022년 우승자 지노 티파곤(태국)과 아직 이번 시즌 우승 물꼬를 트지 못한 넬리 코다(미국), 야마시타 마유, 사이고 마오, 리오 다케다, 치사토와 아키



에 이와이 자매 등 LPGA 투어에서 대세가 된 일본 선수들과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우승자 재스민 수완나뿌라(태국)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연합뉴스

일본서 32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 대축제

아이치현·나고야시 일원서 2026년 9월 19일 개막
한국, 종합 2위 탈환·야구 5연패·축구 4연패 도전



하계 아시안게임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 대회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 때문에 2023년에 개최돼 이번에는 3년 만에 다시 ‘아시아인의 대축제’ 성화가 타오르게 됐다. 일본이 하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은 1958년 도쿄, 1994년 히로시마에 이어 나고야 대회가 32년 만에 세 번째다. 2026년 9월 19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 마스코트는 일본어로 ‘불꽃’을 뜻하는 ‘호노호’에서 유래한 ‘호노호’로 정됐고, 대회 슬로건은 ‘여기서 하나로’ (Imagine ONE ASIA)다. 41개 종목에 금메달 460개가 걸려 있다. 하계 아시안게임은 하계 올림픽에 비해 종목 수가 많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32개 종목이 열렸고, 2026년 아시안게임은 41개 종목에서 금메달 주인공을 가려낸다. 우슈와 세팍타크로, 카바디, 가라테, 쿠라시, 주짓수, 소프트테니스 등 올림픽에서는 열리지 않는 종목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는 포함돼 있다. 2023년 항저우 대회와 비교하면 드래곤보트, 롤러스케이트, 브리지, 체스 등이 빠졌고 대신 서핑 종목이 포함됐다. 또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쿼시와 크리켓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올림픽 데뷔’ 전초전 성격으로 삼을 전망이다. 인기 종목인 야구와 남자 축구는 각각 5회 연속과 4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야구와 남자 축구는 금메달 획득 여부에 따라 스타급 선수들의 병역 혜택이 좌우되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이 아시안게임에 더 특별히 쏠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1998년 방콕 대회를 시작으로 2002년 부산,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대회까지 5회 연속 종합 2위에 올랐으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과 2023년 항저우 대회 때는 일본에 밀려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6년 대회는 일본에서 열리는 만큼 종합 2위 탈환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201개를 쓸 어답아 일본(52개)과 한국(42개)의 금메달 수 합계 2배 이상을 획득한 ‘공룡’ 중국은 압도적인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선수 2명,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정식 채용

지난 6월 고용 협약 체결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선수 2명이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정식 채용됐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난 15일 연구원 본원에서 장애인체육 선수 2명을

정식 채용하고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채용된 선수는 아이스하키와 보치아 종목 각 1명으로 이들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받는 동시에 훈련과 역량 개발에도 나서는 등 직장 생활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채용은 전남도 출연기관 가운데 첫 사례

로, 체육회와 연구원은 지난 6월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체육회는 선수 발굴과 고용방안 제시, 인제 연계 등에 나섰고 연구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이번 성과가 만들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